

해방전 농민형상소설들에 반영된 부정인물의 형상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정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20세기초엽의 우리 나라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고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증보판 169페이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가 속한 계급과 민족의 본질적인 특성을 체현한 인물로 전형화되어야 한다.

해방전 농민형상소설은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인물은 물론 부정인물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농촌의 시대적현실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해방전 농민형상소설에는 착취계급의 형상과 일제의 식민지정책수행의 하수인으로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려는 비굴하고 너절한 인간추물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다.

해방전 농민형상소설에 반영된 부정인물들의 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착취계급의 형상이다.

착취계급에 대한 형상은 해방전 농민형상소설들에 그려진 부정인물형상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 형상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농촌에서 기본계급적대립이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과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주를 비롯한 반동계급과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착취계급들인 지주나 마름 등과 같은 부정인물들을 잘 그리는것은 당시 식민지농촌의 시대적현실과 농민들이 겪는 수난과 그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서 큰 몫을 가진다.

해방전 농민형상소설에 반영된 착취계급의 형상에서는 우선 반인민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린색한 착취자들을 보여주었다.

단편소설들인 《부역》(리기영), 《최서방》(계용목), 《호박꽃》(조벽암), 《홍염》(최서해), 《흘러간 마을》(엄홍섭) 등에 반영된 착취계급의 형상이 그 대표적인것들이다.

《부역》에서 한푼의 돈도 주지 않으면서 농민들을 제집 창고공사에 내몰고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친 한 농민을 두고는 《코뿔만 귀》면서 제가 잘못해 다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나고 오히려 오르는 지주 김참봉의 형상, 억수로 쏘아지는 비로 방축이 터져 수백명의 농민들이 가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는데 별장락성식을 하면서 진탕치며 놀아대는 《흘러간 마을》에서 최병식의 형상, 한해농사를 다 빼앗아가고도 성 차지 않아 술까지 뿔아가려는 《최서방》에서 송지주의 형상은 당시 착취계급의 반인민적이며 락탈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형상인것이다.

한편 단편소설 《농부의 집》(리기영)에서도 반동적지주계급의 비인간적면모를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 복술어머니는 밥지을 쌀 한알 없어 지주집개가 썩 똥에 섞인 보리쌀을 씻어 시어머니에게 밥을 지어올린다. 한편 수재로 논을 다 잃고 병들어 누워있는 정침치에게 최지주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야단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집을 차압하겠다고 강박하며 그 아들놈은 딸을 보내면 빚갚는 기한을 연기하여주겠다고 회유한다.

작품에서 최지주와 그 아들놈의 형상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아닌 착취계급의 전형적인 형상이다.

작품에서는 농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고 또 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반동계급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빈궁과 수난의 원인을 날카

롭게 파헤치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농민들의 성격형상을 부각시킬뿐아니라 그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증시켜주고있다.

해방전 농민형상소설에 반영된 착취계급의 형상에서는 또한 착취계급의 교활성과 탐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대표적작품들로서는 장편소설 《고향》(리기영), 《상록수》(심훈) 등과 단편소설들인 《호미를 쥐고》(송영), 《농우》(리근영) 등을 들수 있다.

장편소설 《상록수》에서 강기만은 《진홍회》와 같은 어용단체를 내오고 거기에 소작인들을 빚값으로 위협하여 끌어넣음으로써 동혁이가 피땀흘려 이룩한 모든것을 순식간에 파탄시키는데서 쾌락을 느끼는 사기한으로 형상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단편소설 《호미를 쥐고》에서는 등치고 배만쳐주는 식으로 농민들을 교활하게 착취하는 리농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 리농감은 제집 잔치에 소작인들을 불러 술 한잔씩 먹이고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며 가난한 농민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의 계급의식을 무마시키고 자기의 손발로 엮어매놓으려 한다.

리농감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정체는 《동척회사》놈들에게 소작권을 떼우게 된 농민들의 격분한 심정을 《위로》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픽》섭섭은 하겠지만 언제는 우리들이 그것때문에 죽고 살았나. 달라는것은 내줘버려야지.》하고 농민들을 구슬리는 리농감의 형상은 일제에게 아부하고 농민들을 회유기만하며 웃음과 동정의 채찍으로 농민들을 착취한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착취자의 형상인것이다.

장편소설 《고향》에서 안승학과 숙자가 원두막을 놓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세부는 한푼의 돈도 살점을 떼주는것처럼 아까워하며 돈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하는

착취계급의 수전노적인 근성을 보여주는 인상깊은 세부이다.

안승학은 참외를 사먹는 값을 20원으로 잡고 원두막을 놓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본다. 참외값보다 넘는다면 원두막을 세우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19원 15전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도 안승학과 숙자는 1원도 못되는 차이를 놓고 원두막을 놓을것인가 말것인가 반나절을 옥신각신한다. 그러다가 안승학은 원두막을 놓아야 할 근거를 《발견》하는데 원두막이 있으면 낮에 그들이 있으니 옷에 땀이 배지 않아 땀 때 옷이 상하지 않고 또 비누값, 품값이 절약된다는것을 타산하게 된다.

이리하여 부부간에는 원두막을 놓는것이 유리하다는 결심이 세워진다. 원두막을 놓을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안승학과 숙자가 반나절이나 수판을 튀기는 이 형상은 철저히 수전노인 안승학의 탐욕적인 성격을 생동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해방전 농민형상소설들에 반영된 부정인물들의 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수행의 하수인들의 비굴하고 추악한 형상이다.

그러한 대표적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들인 《모범경작생》(박영준), 《평범한 이야기》(박승극), 《경칩》(현덕) 등의 작품들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평범한 이야기》에서는 《색의 장려》라는 구실밑에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짓밟고 농민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놈들에게 끝까지 항거하는 농민들에게 《그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사람네가 하라는건 꼭 다 그대로 일부분 시행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서상봉을 비롯한 그 떼거리들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달라가는 논귀통이에 모인 송사리떼》의 운명과도 같은 자기들의 처지에 반발하여 《이대로는 안되겠다. 그렇다. 어찌 싸우지 않을수 있느냐.》라고 일떠서는 성삼,

춘보를 비롯한 진보적농민들의 형상과 예리하게 대조되고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하수인이 되어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고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려는 력사의 추물들에 대한 형상은 단편소설 《모범경작생》에서도 실감있게 그려보이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기서는 일제의 식민지농업정책에 추종하는 《모범경작생》으로 그려지고있다.

기서는 면장과 면서기를 등에 업고 농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은 불경기이지만 곧 호경기가 올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시키는대로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농민들을 회유한다. 그러면서 흉작으로 지주에게 도지를 덜어줄것을 말해달라는 농민들의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면서기에게는 자기의 뽕나무모를 비싸게 팔아달라고 하면서 면장의 호세입상안에 동의한다.

작품에서 기서는 근로농민들의 리익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리익을 앞세우는 극도의 리기주의자의 형상인 것이다.

모두 호세가 오르고 흉년인데도 도지를 바쳐야 했지만 기서네는 례외로 되는 현실 앞에서 농민들은 기서의 통간에 분개하여 김기서라고 쓴 말뚝을 쪼개버린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수행의 하수인들의 형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저 하나의 목숨과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과 존엄도 다 켜버리고 비굴하고 너절하게 잔명을 부지하려는 추물들의 형상이다.

이처럼 해방전 농민형상소설들에 반영된 부정인물들의 형상은 작품에서 일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항거해나서는 농민들의 형상을 부각시키며 당시의 시대적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